

생활협동조합운동과 협동적 지역사회

이재욱

생협전국연합회 전 사무총장

우리나라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은 일제하에서 노동자들의 소비조합이 있었으며 원산 노동자 총파업시 원산노련 소비조합이 보급기지 역할을 함으로서 노동자투쟁을 지원하였다. 노동자들의 소비조합운동은 일제시대 말기부터 해방이후까지 오랫동안 단절되었다. 그리고 80년대에 새롭게 시작된 소비자협동조합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단절된 역사로 인해 출자나 배당에 대한 이해나 훈련이 되지 않았고 이승만으로부터 박정희로 이어지는 극우, 반공 정권은 공유(共有)경제에 대해 붉은 색을 덧칠하여 협동조합 등의 공유 경제를 시도,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농촌에서의 협동운동은 1960·70년대 공업화 개발독재 과정에서 이농으로 인해 농촌인구가 줄면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은 한국 농업의 문제를 농민들의 힘으로만 해결하기 어렵다는 선각적 농민들과 여기에 동의하는 도시 소비자들의 결합이 낳은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협동조합은 농촌과 광산촌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이 시작될 무렵인 70년대 말은 지방의 간선도로망이 부실하던 시절이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인구가 적어서 도로망이 더욱 부실하여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비싸게 공급되고 있었다. 이 무렵 남한강의 수해 피해 지원사업을 하던 강원도 원주 지역의 활동가들이 남한강 상류지역의 농산촌과 광산촌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자립의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했다. 이런 지원사업의 결과로 강원도 평창에서 신리소비자협동조합이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수도권의 도시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어지간한 시군구에 소비자협동조합이 하나 이상씩 설립될 정도로 확산되었다.

90년대 들어 지방 간선도로망의 확충과 현대화된 유통자본이 등장하면서 구판장형 소비자협동조합은 급속히 몰락하여 89년부터 95년 사이에 대부분의 소비자협동조합은 문을 닫는다.

우리나라 소비자협동조합이 위기를 맞았을 때 생활협동조합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생활협동조합은 일본의 생협 특히 생활클럽생협이나 그린코프를 전학하였던 소비자협동조합의 간부들에 의해 「농업·농민들과 함께하는 안전·안심의 먹을거리 공동구매」라는 생협 활동이 소개되었다. 이를 토대로 1985년 5월 안양소비자협동조합(현재 바른생협)이 유기농의 공동구매, 가까운 농촌지역의 생산지 개발, 무점포 반(班)공급을 시행하며 최초로 우리나라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6년 서울제기동에서 시작된 한살림운동은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전형을 만들었다.

1990년대 까지 어렵게 유지해 오던 생협운동은 90년대 이후 외국농산물의 수입 확대와 잔류농약의 문제 등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더해지면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점차 정착되고 확대되어 갔다. 느리게 확산되어가던 생협운동은 1999년 12월에 생협법이 제정되고 유기농산물 등 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생협운동은 60만 세대가 넘는 조합원, 1조원이 넘는 공급고를 이루고 있다.

현재 지역생협의 대부분은 한살림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iCOOP생협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등 사업연합에 편재되어 있다.

2010년에 개정된 생협법에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규정이 신설되었다. 생협법에 따른 생협 전국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해 그 동안 활동해 왔던 사단법인 생협전국연합회는 해산을 하였고 생협법인 전국연합회를 창립하기 위해 한살림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대학생협연합회(준), 한국의료생협연대 소속 생협들과 독자생협들이 모여 발기인회를 구성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iCOOP생협연합회 소속 조합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생협법인 전국연합회를 구성하려면 인가된 생협의 과반수가 참여해야 창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협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에 영리형 유사의료생협이 1년 동안 100개 가까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전국연합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입에 대해 부정적이며 iCOOP생협 또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협법인 전국연합회의 창립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개정된 생협법에는 협동조합의 원칙 중 7번째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른 협동조합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생협운동의 지향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생협은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왔다.

안성에서는 농민들과 의료인들이 함께 만든 안성의료생협이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농민들과 안성의 소비자들이 안성두레생협을 만들어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한살림에서는 ‘가까운 먹을거리’운동을 내세우며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 한살림생협의 가까운 지역 산지 개발 및 생산과 소비의 지역내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지방 중소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자생협들의 경우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생협을 설립하여 지역농업 소비의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구매의 어려움으로 사업연합 소속 생협들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운동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원주지역의 지역과 부문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운동체들의 협의체이다.

원주지역의 협동운동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1969년에 진광학원의 부설로 협동조합연구소가 세워지면서 지역의 신용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낸 원주지역의 협동조합 운동은 한동안 쇠락의 시간이 있었으나 2003년에 밝음신협의 제안으로 원주지역의 협동운동체들을 대상으로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 후 새롭게 창립하는 조직들도 함께하면서 참여의 폭이 넓어졌고 2009년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확대개편하였으며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주된 활동으로 2003년 협동조합 공통신문인 월간 <원주에 사는 즐거움>을 창간, 2005년 3대 조례제정운동추진, 2006년 GMO FREE ZONE 운동, 2007년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협동조합간의 인적 교류와 협동사례,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하면서 원주 지역을 협동조합의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성미산마을 마포구 성산동의 성미산이란 작은 산 주변에 터잡고 사는 사람들과 마을조직들의 네트워크인 ‘성미산마을’은 2001년 성미산지킴이 싸움을 하면서 싸움의 주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넘어서 지역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1994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우리어린이집과 이듬해 낚으는 어린이집이 설립되면서 마을 공동체의 싹이 피어난다. 초기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공동체적인 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방과후 학교, 마포두레생협을 함께 만들면서 친밀과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이런 유대는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자는 결의와 터전을 마련하려는 모색을 연결되었다. 이 무렵 터진 성미산 개발정책은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낳게 했고 협동조합에 참여한 가족들 뿐 아니라 지역의 제 단체와 주민들이 결합하면서 지역의 공동체 의식은 더욱 공고해 졌다. 2003년 성미산지킴이 운동은 승리를 하였고 ‘성미산마을’이라는 상징적 이름을 얻게되었다.

이후 성미산마을은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4곳, 방과후 어린이집 2곳, 생활협동조합, 마을학교 우리마을꿈터, 성미산학교(대안학교), 성미산차병원협동조합(자동차정비소), 동네부엌(반찬가게), 마포 FM(소출력공동체라디오), 되살림가게(재사용 순환), 한땀두레(바느질 작업장), 작은나무(마을 카페), 마포연대(풀뿌리 시민단체), (사)사람과마을(마을만들기 단체), 성미산마을 자동차두레(카 셰어링), 마포의료생활협동조합(준), 마포청년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장애인학부모회 등 협동조합과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성남지역의 협동운동

성남 지역은 1970년대 초 서울의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 형성된 도시이다. 그래서 광주대단지사건 등 빈민문제가 상존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주민문제에 관심을 가진 수도권 특수선교협의회 소속 주민교회와 지역 주민운동가들이 주민신협과 주민생협 등 협동운동을 시작하였다. 성남시는 현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성남용인한살림생협과 성남의료생협, 행복한성남생협, iCOOP성남분당생협 등 생협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복지와 지역주민운동, 생명운동 등을 함께하고 있다. 성남지역에서 협동조합들이 함께하는 협동운동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 주민운동의 저력이 있고 지역의 생협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최근에는 ‘성남지역 협동조합협의회’에서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협동조합간 협동과 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2012년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체, 일본의 생활클럽생협의 인사들과 지역 협동조합운동가들 및 전국의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모여 4일동안 ‘살림의 경제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의 경제,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협력 활동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협동운동을 고양하기 위gi 협동조합간에 다양한 협동과 협력을 시도, 실천하고 있다.